

석사학위논문

무용 작품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에 관한 연구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민 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Dance Work
『The Beauty of Unfinished』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박민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석순

무용 작품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Dance Work
「The Beauty of Unfinished」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박민지

박민지의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무용작품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 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민 지

본 논문은 미완성의 미학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해석한 작품으로, 미완성의 상태에서 용기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대한 연구와 작품 분석이다.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각기 다른 조각으로 나눈 후 모양에 맞게 맞추는 놀이인 퍼즐이 있다. 퍼즐은 다른 모양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 맞추어지지 않으면 완성된 그림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조각이 딱 맞게 맞추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완성’이란 기준은 무엇이며, 기준의 성립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에게 ‘완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졌고, 완성의 반대어인 미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미완성’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완성되지 않아도 좋다.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아름다움도 존재한다. 그 안에는 언제든지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며,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미술에서의 ‘흰색’을 사용하였다. 동양화에서 흰색

은 비어있는 공간으로써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지만, 이는 공간을 남겨둠으로써 깔끔함과 여운을 주는 여백의 미로 여겨진다. 또한, 서양화의 유화 작업에서 흰색은 작품을 수정하는 색으로 쓰인다. 캔버스에 흰색을 덧칠함으로써 수정을 하거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완성이라는 결과만 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생각해보면 완성이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완성이라는 본질 또한 명확하지 않다. 완성의 기준을 타인으로부터 성립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비판하고, 타인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작품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용기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퍼즐’에서 사용되는 ‘조각’ 이미지를 가져왔다. 인간의 신체를 조각조각으로 나누어 촬영하고, 이를 한 면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내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미술에서의 흰색의 의미를 인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로써 미완성인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미디어 영상과 무용을 결합한 작품으로, 조각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움직임의 창작했다. 미완성의 상태를 자각함으로써 작품은 시작되며, 이를 비판하지 않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원동력으로써 사용한다. 이를 한 명의 무용수가 움직임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작품을 표현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발견한 것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 미완성인 상태를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완성되지 않은,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을 때의 생기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와 잠재력이다.

【주요어】 미완성, 완성, 흰색, 잠재력, 용기 미디어 영상, 몽타주, 조각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실존주의	4
2.2 본질주의	5
2.3 심리요법	6
2.3.1 버터플라이 허그 심리요법	6
2.4 편집기법	7
2.4.1 몽타주기법	7
III. 작품 개요	8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8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10
3.2.1 움직임 표현방법	10
3.2.2 의상	11
3.2.3 조명	13
3.2.4 음악	13
3.2.5 영상	15
IV. 작품 분석	17
4.1 1장: 시작	19
4.1.1 장면 의도	19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0
4.1.3 조명	20
4.2 1.5장: 미완성의 상태	21
4.2.1 장면 의도	21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2
4.2.3 음악	23
4.2.4 조명	24
4.3 2장: 미완성의 자각	25
4.3.1 장면 의도	25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5
4.3.3 음악	27
4.3.4 조명	27
4.4 3장: 용기와 잠재력을 지님, 위로	28
4.4.1 장면 의도	28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8
4.4.3 음악	30
4.4.4 조명	31
 V. 결 론	 33
참 고 문 헌	35
부 록	36
ABSTRACT	41

표 목 차

[표 3-1] 장면의 특징	8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10

그 립 목 차

[그림 3-1] 의상(정면)	11
[그림 3-2] 의상(후면)	11
[그림 3-3] 의상(측면)	12
[그림 3-4] 영상 이미지1	16
[그림 3-5] 영상 이미지2	16
[그림 3-6] 영상 이미지3	16
[그림 3-7] 영상 이미지4	16
[그림 3-8] 영상 이미지5	16
[그림 4-1] 1장의 동선	19
[그림 4-2] 완성의 지점을 향해 걸어감	20
[그림 4-3] 완성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 함	20
[그림 4-4] 1장 조명의 형태	21
[그림 4-5] 영상과 1.5장의 장면1	22
[그림 4-6] 영상과 1.5장의 장면2	22
[그림 4-7] 영상과 1.5장의 장면3	22
[그림 4-8] 영상과 1.5장의 장면4	22
[그림 4-9] 1.5장의 동선	23
[그림 4-10] 1.5장 조명의 형태	24
[그림 4-11] 조각을 나타내는 반복적 움직임1	25
[그림 4-12] 조각을 나타내는 반복적 움직임2	25
[그림 4-13] 미완성의 상태를 자각1	26
[그림 4-14] 미완성의 상태를 자각2	26
[그림 4-15] 2장의 동선	26
[그림 4-16] 2장 조명의 형태	27
[그림 4-17] 확장된 조각이미지의 움직임1	28
[그림 4-18] 확장된 조각이미지의 움직임2	28

[그림 4-19] 확장된 조각이미지의 움직임3	29
[그림 4-20] 버터플라이 허그의 반복적 움직임	29
[그림 4-21] 3장의 동선1	30
[그림 4-22] 3장의 동선2	30
[그림 4-23] 3장의 동선3	30
[그림 4-24] 3장의 동선4	30
[그림 4-25] 3장 조명의 형태1	31
[그림 4-26] 3장 조명의 형태2	31
[그림 4-27] 3장 조명의 형태3	32
[그림 4-28] 3장 조명의 형태4	32

I. 서 론

본 연구는 미완성의 미학에 대한 주제로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라는 작품을 연구하고 표현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미완성에서 가지는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즉, 미완성 상태에서 가지는 용기와 잠재력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움직임으로 풀어낸 현대무용 작품이다.

사회 속에서 결과는 중요하다. 결과에서도 완성된 상태를 인정한다. 많은 사람이 완성되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결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완성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완성의 척도는 무엇이며, 성공이라는 정의는 무엇이며, 그 정의를 내린 사람도 알 수 없다. 즉, ‘완성’이란 무엇인지, 그 실존과 본질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에게 ‘완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졌고, 실존주의와 본질주의의 입각하여 ‘완성’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문의 시발점에서 파생되어 연구하고 분석한 것이 미완성의 상태이다. 미완성인 상태는 단어 그대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완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미완성인 상태의 미(美)를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왜 사람들은 미완성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미완성인 상태는 거론되지 않는 것일까.

‘모든 미완성을 괴롭게 여기지 말라.

미완성에서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은 일부러 인간에게 수많은 미완성을 내려주신 것이다.’

-아놀드 하우저- 1)

그렇다면 미완성의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1) 아놀드 하우저, 1892년 5월 8일 ~ 1978년 1월 28일, 헝가리의 역사학자로 오랜 기간 동안 영국에서 살면서 미술사, 정신분석학, 예술 이론, 미학, 사회사, 문화사, 미술 심리학 등의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든 미술사학자이다.

가곡의 왕이라 불리며 마왕(The Erlking), 송어(The Trout) 등을 작곡한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schubert, Franz Peter, 1797.01.31.~1828.11.19)는 미완성 작품을 남겼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교향곡 제 8번 b단조의 미완성 교향곡(Symphony No, 8 in minor 'Unfinished')이다. 보통의 교향곡들은 4악장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25세에 작곡을 시작하여 미완성 상태인 이 교향곡은 3악장 중간에서 끝난다. 이 교향곡의 작곡을 시작하고 요절할 때까지 6년이란 세월이 있었으며,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걸작을 많이 완성한 슈베르트는 이 곡만큼은 완성하지 않았다. 왜 끝까지 미완성상태로 남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품은 미완성인 상태로 '완전한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다.

미완성의 미학은 무엇일까? 단어 풀이 그대로 미완성이 가지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눈에 보이는 상태 모습 그대로, 접근하였다. 아름다움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무용 작품으로 풀어나가며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 원하는 대학의 진학, 졸업, 대학의 입상, 공모전 등 여러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실패도 하였다.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실패감과 패배감을 느꼈다. 그 과정 속에서 잃은 것들도 많다. 그 순간의 목표들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였고 열등감에 빠져 긴 슬럼프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 '완성은 무엇인가', '그 기준이 나로부터 발생된 것인가' 그렇다면 '미완성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력과 도전의 연속 속에서 완성되지 않아도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계기로 인하여 작품의 주제와 연구목적이 생기게 되었다. 미완성인 상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작품의 제작 및 연구를 하였다.

「조각들이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의 작품에서 미완성의 상태를 위한 표현방법으로 조각과 흰색이라는 이미지의 사용하였다. 조각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영상매체를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자의 제작 영상

이다. 인간의 신체의 각 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 편집기법으로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조각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미완성의 상태를 대변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보이는 ‘색’을 사용하였다, 색의 선정에 있어서 본 연구자가 앞서 도출해낸 ‘미완성의 아름다움’의 의미를 함축시킨 색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흰색’을 선정하였고, 더 나아가 용기와 잠재력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 해석과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리요법을 직접적 동작으로 나타내었다.

II. 이론적 배경

2.1 실존주의 (Existentialism)

실존주의란, 20세기 전반에 이르러 ‘합리주의’와 ‘실증주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서 독을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이다.

실존주의 (Existentialisme)에서 실존 (Existence)은 ‘밖’이라는 뜻의 ‘ex’와 ‘나타나다’라는 뜻의 ‘sistere’의 합성어로 ‘밖으로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질에 대한 현실존재를 의미하는 실존주의는 실존이라는 단어에 ‘1위’라는 뜻의 접미사 ‘isme’이 덧붙여져 실존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이론을 뜻한다.²⁾

193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등 여러 형태의 사회체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에서 인간을 인격체가 아닌 집단 속에 하나의 개체로서만 취급하고, 전쟁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군사적인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실존주의의 시발점이다.

사람들은 태어나 살아가고 신체로서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삶의 과정 안에서 이루고자 소망한 일들은 죽음에 빗대어 본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희망을 갖고, 여러 경험들을 하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죽음에 빗대어 본다면 모든 일은 허무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계속해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고자 한다.

2) Paul Foulquié(1990), 『실존주의』, 김원옥 (역), 탐구당, p.9.

2.2 본질주의 (Essentialism)

본질이란, 어떤 사물이 그 ‘자체’도록 하는 사물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우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성질과 분별된다. 또한 과학이나 철학이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것을 표현한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사물의 본질적이거나 필수적인 특성, 혹은 '본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즉, 이상형에 대한 본질주의의 사례이다.

포퍼(K.R. Popper)는 사물의 진실한 본질을 발견하고 기술하기 위한 것을 과학의 임무라고 보았던 플라톤주의적 관점을 특징화하기 위해 이 용어를 쓰고 있다. 방법론적인 명목주의는 그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관점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인데, 그는 모든 건전한 과학적 연구에 속하는 것으로 귀속시켰다.

반면 지적인 활동의 대상은 대상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며, 특히 그 행동 내에서의 규칙성을 규명한다. 본질주의자는 "에너지란 무엇인가", 혹은 "본질은 무엇인가"하고 묻는 반면, 방법론적인 명목주의자는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어떤 조건하에서 원자는 빛을 발산하는가"를 묻는다. 용어의 중요성과 그 분석을 강조하지 않고 도구로서의 단어의 활용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방법론적인 명목주의자에 의해 사용된 정의의 종류는 조작주의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³⁾

여기서 본질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실존(existence)과 대립한다. ‘현재 존재하여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즉 ‘현상에 대한 본질’이라는 말이다. 즉, 자체 중에 사물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유물론의 견해이다.

3) 고영복(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3 심리요법 (Psychotherapy)

심리요법이란, 약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심리적인 방법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신경증 등 심리적 원인에 따른 병을 대상으로 정신분석, 최면요법, 암시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정신요법으로 칭하기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물리적, 생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이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쓰일 때는 심리요법이라고 표현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심리적인 기법에 의하는 것을 칭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아동 또는 청년의 교육은 물론이며, 성인의 일상생활이나 의학의 대상이 되는 많은 병에 있어서도 심리요법으로 처리되는 것과 비슷한 심적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심적인 부재나 부적응이 생기는 것은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정동이 부적당하여 감정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인격이 미숙하여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며, 대인적인 인지력과 태도가 부족하여 사회생활상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며, 인생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을 해소 및 처리하고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심리요법이 사용된다.

2.3.1 버터플라이 허그 심리요법

1998년 멕시코에서 허리케인을 경험한 사람들의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근심, 두려움, 걱정, 불안 등 감정적으로 동요가 심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용한 공간에 편안하게 앉는다.

두 번째, 왼손은 오른쪽 어깨에, 오른손은 왼쪽 어깨에 올려 X자로 교차시킨다.

세 번째, 천천히 4~6회 정도 어깨를 토닥여준다.

네 번째,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평온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다섯 번째, 어깨를 토닥이는 것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다.

이 과정을 차분해질 때까지 3~5회 반복한다.

2.4 편집기법

편집기법이란, 대부분의 영화는 작품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을 재구성한다. 자연스러운 연결 방법의 편집 이외에도 관객의 흥미와 공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편집기법이 있다. 몽타주, 플래시백, 디졸브, 교차편집 등의 현대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들이다.

2.4.1 몽타주 기법

‘몽타주(montage)’는 프랑스어로 ‘편집’이란 뜻이다. 현대 영화에서 보이는 몽타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요약 및 전달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압축한 시퀀스(sequence)이다. 몽타주기법을 통해 플롯(plot)을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며,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시각적인 효과로 사용하기도 한다.

Ⅲ. 작품 개요

3.1 작품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의 작품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에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미완성인 상태에서 가지는 용기와 잠재력을 표현하고자 움직임으로 풀어낸 현대무용 작품이다. 움직임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총 3장의 장면으로 작품을 구성하였으며, 장면이 바뀔 때마다 영상의 사용, 조명의 전환 그리고 음악으로 장면의 전환을 만들어냈다.

<표 3-1>로 장면의 특징을 만들었다.

표 3-1. 장면의 특징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시간
1장	시작	동선(動線)을 사용	3분
1.5장	미완성의 상태	미디어 영상과 움직임의 결합	4분
2장	미완성의 자각	반복되는 움직임으로 마치 수동적인 모습을 보임	3분
3장	용기와 잠재력의 내포. 위로	2장의 반복적인 움직임의 확장, 능동적인 모습을 보임 위로: 버터플라이 허그 움직임 사용	6분

사람이 살면서 겪는 미완성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 명의 무용수가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을 들어감에 있어 0의 상태에서 완성이라 칭하는 100의 상태, 숫자를 생각하며 움직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각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점, 선, 면에 대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리서치 하였으며, 점과 점이 만났을 때의 선의 모양, 선과 선이 이어졌을 때의 면의 면적 등을 이미지화하였다.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의 표현 방법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에서 본 연구자가 찾아낸 움직임은 도형의 이미지에서 응용하였다. 도형을 이루는 점, 선, 면의 각각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점과 점이 만날 때의 선의 모양, 선과 선이 만났을 때의 면의 모양을 연구하였다. 1차원에서 2차원까지의 평면에 보일 수 있는 다각형의 모양들을 이미지화하였다.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움직임	이유	특징
점 (스타카토)	선이 존재하기 전의 점은 좌표에 점으로 표시	작은 점 하나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해 단발적인 움직임으로 표현
선 (아다지오)	점과 점이 만나 직선 및 곡선으로 나타남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이 만들어지는 라인을 표현
면 (크레센도)	선과 선이 만나 면으로 확장	선과 선이 만나 면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무게감 있게 표현

3.2.2 의상

무대의상이란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꾸미는 이야기(극)를 그 내용으로 구성하는 무대예술, 즉 연극, 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뮤지컬, 오페라, 음악극 등과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마련되는 의상이라 한다.⁴⁾



<그림 3-1> 의상 (정면)



<그림 3-2> 의상 (후면)

4) 김현숙(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p.25.



<그림 3-3> 의상 (측면)

미완성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회화에서 비어있는 상태, 캔버스에 색이 칠해지기 전인 하얀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흰색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이자 의상 색상이다. 비어있는 공간을 남겨둌으로써 작품에서 여백의 미가 될 수도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흰색의 윤택물감이 될 수도 있다. 흰색이 상징하는 의미는 용기와 잠재력이다.

3.2.3 조명

본 연구에 있어 조명은 작품 내에서의 표현 방법과 주된 움직임은 강조하기 위하여 조명의 사용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하였으며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다.

1장에서 0에서 100으로 향해 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상수에서 사이드 조명만을 사용하였다. 1.5장에서는 프로젝터에서 송출되는 영상의 빛이 화이트 벽에 잘 묻어내기 위해 조명을 최소화하였으며, 영상과 함께 보여 지는 무용수의 움직임은 보일 수 있도록 업 조명을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명이 사용된다. 무용수 앞에 풋 조명이 사용되어 흰 벽에 무용수의 움직임이 그림자로 나타나 더 확대되어 보인다. 흰색의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흰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에게 흰색의 빛이 비춰지지만 검은색의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미완성의 올바른 자각이 어려움을 암시한다. 이때의 조명이 주된 표현방법으로서 무대라는 공간과 반복적인 무용수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3장에서의 조명은 작품 중에서 제일 밝다. 같은 화이트 톤의 조명이지만, 무대를 밝게 비춤으로써 확장된 움직임을 더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밝은 조명으로서 미완성인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미완성에 대한 의미를 밝힘으로써 용기와 잠재력에 대한 아름다움을 암시시켜주는 조명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장면은 본인을 위로하는 움직임으로 반복적인 동작이 자기 위로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무용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었다.

3.2.4 음악

무용 작품에 있어서 음악은 장면마다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용수의 움직임과 음악이 시너지를 분출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주제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작품에 있어서 음악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며 움직임
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무용은 음악적 리듬의 신체적 표
현이다.”⁵⁾

본 연구에 있어 음악은 역시 큰 역할을 하였다. 음악은 2곡의 음악을
사용 하였는데 1.5장에서는 Mc coy tyner 의 ‘summer time’ 을 3장에서는
Chopin의 ‘Nocturne No.1 In B flat minor Op. 9-1 (쇼팽: 야상곡 1번 내
림나단조 작품번호 9-1) 음악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사용한 음악은 Mc coy tyner 의 ‘summer time’ 로 1.5장에서
영상과 함께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사용한 음악은 Chopin의 ‘Nocturne
No.1 In B flat minor Op. 9-1 (쇼팽: 야상곡 1번 내림나단조 작품번호
9-1) 으로 3장에서 사용하였다.

두 개의 음악 모두 피아노로 연주된 음악으로 피아노의 건반소리가 시
각적으로 이미지화 시킨 점, 선, 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라 생각
했다. 여러 악기의 소리가 섞인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단일 악기인 피아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며, 이는 무대에 혼자 있는 무용수의 움직임을 관객
에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5) 김명신(1995), 『무용에서의 움직임과 음악의 요소가 작품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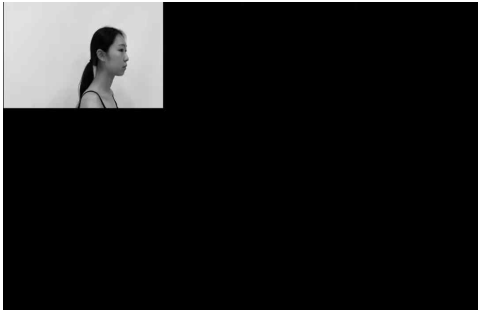
3.2.5 영상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에서 본 연구자가 찾아낸 움직임은 도형의 이미지에서 응용하였다. 도형을 이루는 점, 선, 면의 각각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점과 점이 만날 때의 선의 모양, 선과 선이 만났을 때의 면의 모양을 연구하였다. 1차원에서 2차원까지의 평면에 보일 수 있는 도형들을 이미지화하였으며, 2차원의 모습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상을 사용하였다. 움직임 적으로 2차원적인 도형의 모습을 이미지화하였다면, 시간성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영상매체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면을 확대하였다. 현실의 시공간을 그대로 복제하는 비디오 영상기술을 사용하였다. 고정된 프레임 공간 안에서 시간 축 상에 연속적으로 배치된 이미지들의 전환을 통해 의미를 구축하였으며, 감상자로 하여금 시간 구조와 공간 구조가 변화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표현한 점, 선, 면의 이미지보다 시간성과 결부된 공간 속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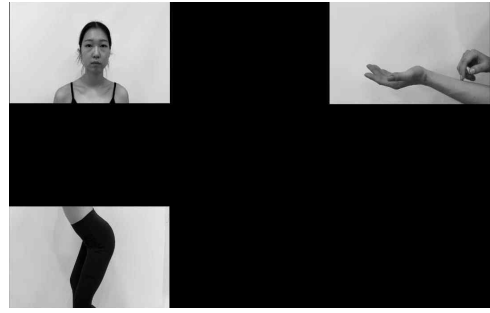
편집 기법으로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몽타주(montage)란. 프랑스어로 ‘조립하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장면들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다.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편집 기법으로 한 칸(면)에 여러 이미지(그림)를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시간, 심리, 움직임들의 다중 노출을 통해 ‘메시지 전달’이라는 효과를 강조하려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제목의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각들이 나열되는 영상을 사용하였다.

1장에서 한 명의 무용수가 나와 0의 상태(하수)에서 100의 상태(상수)로 걸어간다. 하지만 100의 상태-완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 미완성의 상태에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조각들이 나열되는 영상이 송출된다.



[그림 3-4] 영상 이미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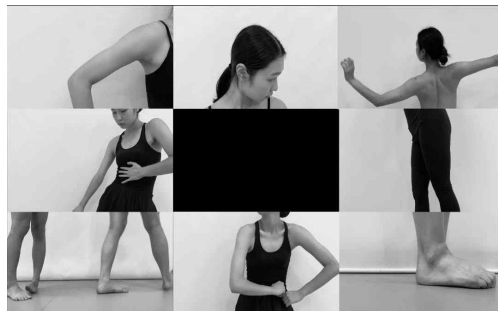
[그림 3-5] 영상 이미지2



[그림 3-6] 영상 이미지3



[그림 3-7] 영상 이미지4



[그림 3-8] 영상 이미지5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총 9개의 프레임이지만 8개의 영상이 조각조각 나타난다. 하나의 조각이 공백으로 나타나며 미완성 상태를 뜻한다.

IV. 작품 분석

안무	박민지
출연	박민지
음악	1장 : Mccoy tyner ‘summer time’ 3장 : Chopin ‘Nocturne No. 1 In B flat minor Op. 9-1’ (쇼팽: 야상곡 1번 내림 나단조 작품번호 9-1)
영상	미디어 영상 (자체제작)
작품시간	약 16분

1. 작품의도

3인칭으로 작품의도를 아래의 시와 같이 표현하였다.

사회 속에서 평가받는 완성과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무엇을 행하는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무엇을 행동으로 실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2. 작품내용

모든 미완성을 괴롭게 여기지 말라.
미완성에서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은 일부러
인간에게 수많은 미완성을 내려주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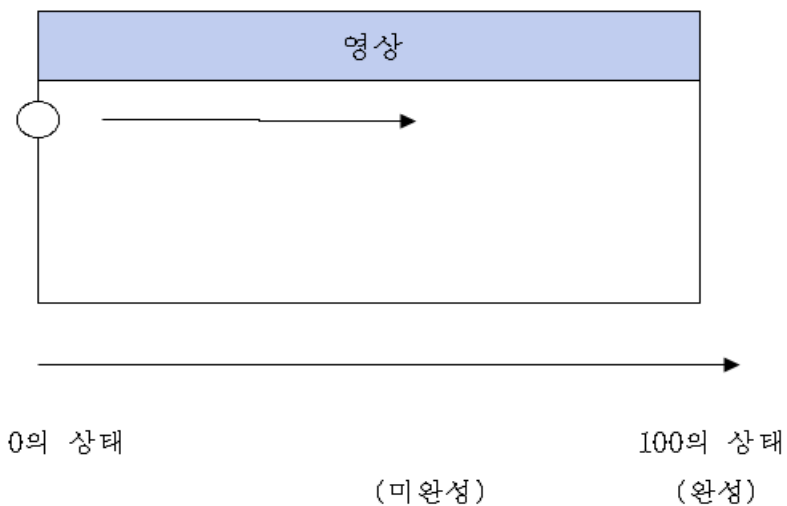
-아놀드 하우저-

당신은 용기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완성이라는 결과에 틀을
만들어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란다. 미완성인 상태여도 당신은 참으로 괜찮
은 사람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람들은 도전과 노력을
통해 사회가 보는 ‘완성 또는 성공’을 위해 나아간다. ‘완성과 성공’의 척도
그리고 유무를 판단하는 주체가 본인이었으면 한다. 자아의 실존을 경험하
고 도전과 노력 그 자체를 용기와 잠재력으로 수용하였으면 한다.

4.1 1장 : 시작

4.1.1 장면 의도

좌표에서 X축의 의미를 사용하여, 숫자로서 의미를 전달하였다. X좌표에서 중간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0, 오른쪽은 100의 숫자를 나타낸다. 이때의 0를 시발점으로 두고, 100을 완성의 상태로 정하였다. 따라서 100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점들은 미완성인 상태의 경우의 수들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동선(動線)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이 시작되고, 미완성의 상태에서 주저앉는다.



<그림 4-1> 1장의 동선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2>

완성의 지점을 향해 걸어감



<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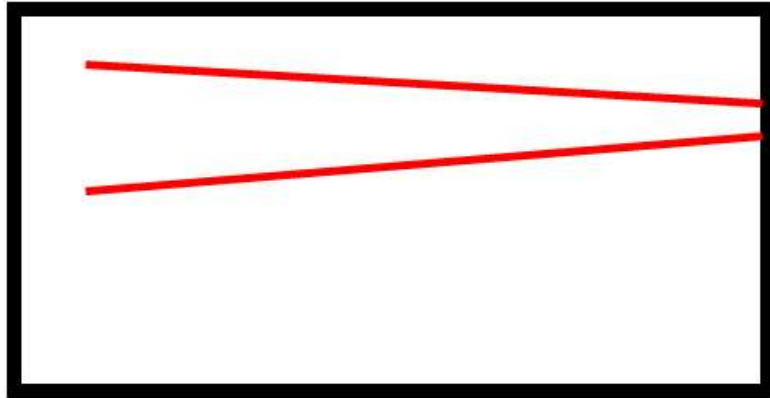
완성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 함

1장에서 <그림 4-1>와 같이 무용수가 0의 지점에서 100의 지점으로 나아가지만 미완성의 지점에 멈추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미완성의 상태이지만 그 지점까지도 노력과 수고가 따랐음을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편하지 않은 움직임으로 미완성의 지점에서 표현한다.

4.1.3 조명

하수에서 상수로 가는 동선이 강조 되어야하기 때문에 상수에서 시작되는 사이드 조명을 사용하였다. 상수에서 조명을 사용함에 따라 하수에서 상수로 점차 빛이 작아지는 모양을 띤다.

(빨간 선 = 조명)



<그림 4-4> 1장 조명의 형태

4.2 1.5장 : 미완성의 상태

4.2.1 장면 의도

미완성의 지점에서 주저앉은 무용수가 미완성의 상태를 표현한다. 사람의 신체를 부위별로 움직이는 영상들이 총 9개의 프레임 중 8개의 프레임에 나타난다. 이는 신체 부위별로 해야 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지만 하나의 프레임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음으로서 끝내 완성되지 못한다. 영상과 동시에 무대 공간에서 스타카토와 아다지오 형식의 움직임을 무용수가 보인다.

이는 영상이 가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점, 선, 면 그리고 다각형의 이미지를 통하여 2차원이 가지는 특성인 시간의 제한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5>
영상과 1.5장의 장면1



<그림 4-6>
영상과 1.5장의 장면2



<그림 4-7>
영상과 1.5장의 장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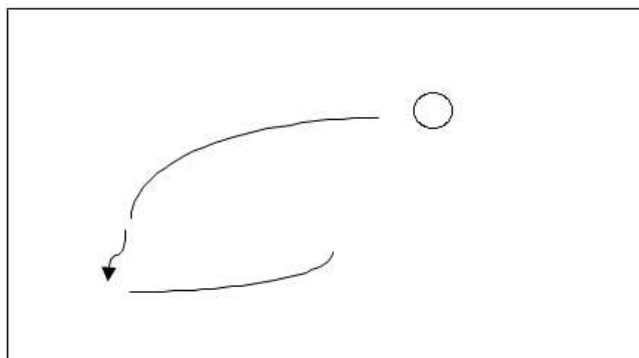


<그림 4-8>
영상과 1.5장의 장면4

한 명의 무용수가 스타카토와 아다지오의 움직임 그리고 움직임의 가동범위가 점차 커지는 크레센도의 형태를 보인다.

이 장면에서의 움직임은 다각형 모양을 이루기 전인 상태인 점, 선, 면의 상태를 리서치하여 만들어내었다. 점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단발적인 움직임, 스타카토 형식의 움직임을 만들었으며, 선의 직선 또는 곡선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아다지오의 움직임을 연구하였다. 또한 점에서 선

으로, 선에서 면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노래의 후반부로 갈수록 움직임의 가동범위를 확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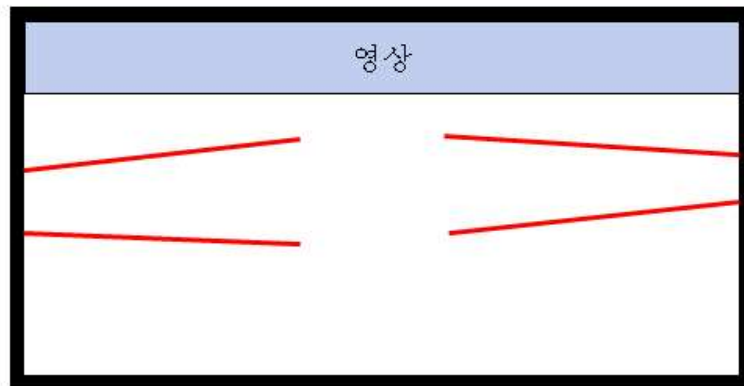
<그림 4-9> 1.5장의 동선

4.2.3 음악

1.5장의 시작에 영상과 함께 Mccoy tyner ‘summer time’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이 음악은 재즈음악으로 재즈의 특성으로 다양한 악기들의 합연 버전이 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피아노 버전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피아노 건반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부분에 점의 이미지, 스타카토를 표현하기 좋았으며, 아다지오의 선율이 선과 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밀고 당겨지는 음악으로 영상과 움직임이 어우러졌으며, 조각을 표현한 미니멀한 움직임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4.2.4 조명

조명은 무대의 비춰지지만 연한 조명을 사용하여 무대의 공간을 넓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는 빔 프로젝터를 통해 송출되는 영상이 보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무용수의 움직임도 묻히지 않고 전달하기 위하여 무용수의 신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이드 조명과 업 조명을 연하게 사용하였다. 극장의 상황으로 영상이 무대의 사이드 넓이만큼 스크린에 담기지 못하여 뒤의 막을 통해 영상 스크린 넓이를 줄였고, 그에 맞게 무대의 넓이를 좁혀 사용했으며, 무대 테두리는 조명을 연하게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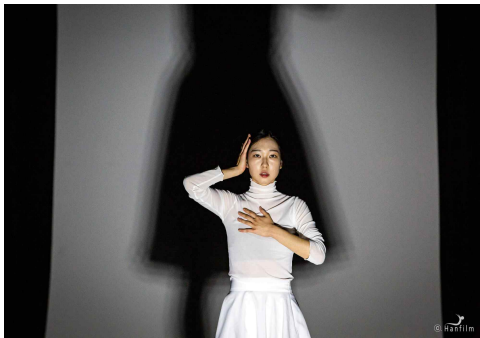
<그림 4-10> 1.5장 조명의 형태

4.3 2장: 미완성의 자각

4.3.1 장면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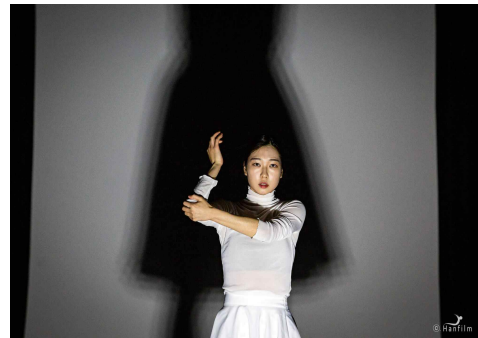
이 장면을 통해 미완성 상태의 자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숫자 1,2,3,4,5 그리고 0을 손가락으로 표현하여, 반복적인 움직임의 진행하였고,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가파르게 쉬는 무용수의 호흡 소리만으로 움직임을 이끌어 내었다. 이 장면은 계속해서 모자라는 조각의 개수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퍼즐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태를 보인다. 이는 아마도 ‘타인이 정해놓은 완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으로 수동적이면서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하얀 빛으로 물들지만 동시에 검정색으로 물든 그림자를 통하여 힘들어하는 원인을 모르는, 자아를 찾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였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11>

조각을 나타내는 반복적 움직임1



<그림 4-12>

조각을 나타내는 반복적 움직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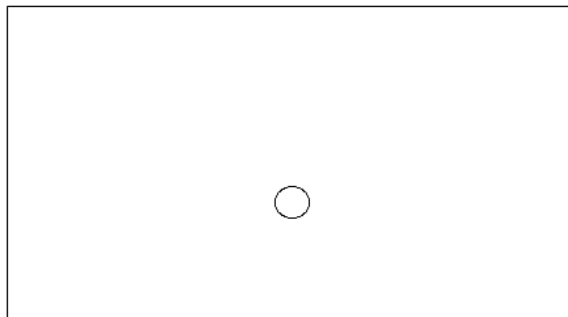


<그림 4-13>
미완성의 상태를 자각1



<그림 4-14>
미완성의 상태를 자각2

무용수 앞에 풋 조명이 사용되어 흰 벽에 무용수의 움직임이 그림자로 나타나 더 확대되어 보인다. 흰색의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흰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에게 흰색의 빛이 비춰지지만, 검은색의 그림자가 보임으로써 미완성의 자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된 표현방법으로서 무대라는 공간과 반복적인 무용수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그림 4-15> 2장의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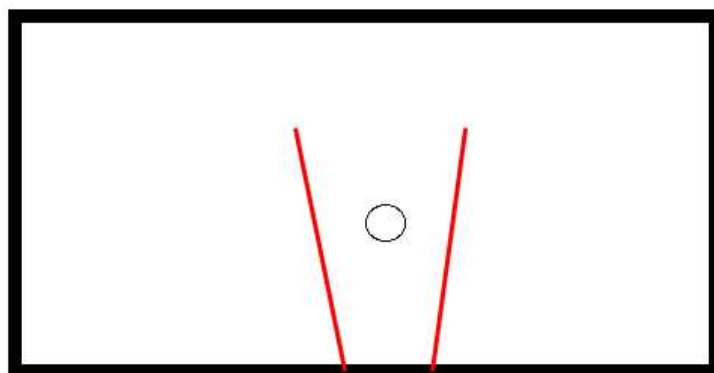
4.3.3 음악

무음으로 이루어지며, 무용수의 조각의 부재에 따라 조급하고 숨이 막힐 듯 가파른 호흡 소리가 미완성의 자각을 보여준다,

4.3.4 조명

3장의 장면 중 가장 조명의 효과가 중요한 2장이다. 무대 한 가운데 지점에 서 있는 무용수 앞에 쏘 조명이 사용되어 흰 벽에 무용수의 움직임이 그림자로 나타나 더 확대되어 비춰진다.

이는 가파른 호흡 소리와 함께 그림자로 하여금 보여 지는 무용수의 거대한 사이즈를 통하여 역동적이지만, 절제된 동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그림 4-16> 2장 조명의 형태

4.4 3장: 용기와 잠재력을 지님, 위로

4.4.1 장면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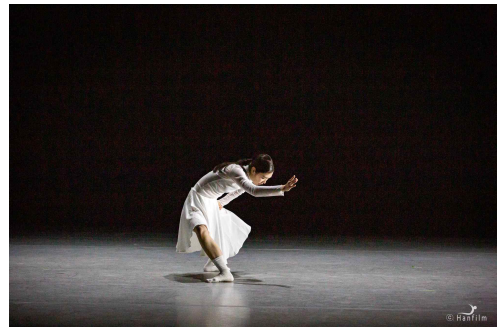
결국 부족한 조각을 찾지 못한 인간은 미완성의 상태를 자각하고,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한다. 미완성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용기와 잠재력을 깨닫게 되며, 그러한 자신을 위로하고 괜찮다고 말해준다. 확장된 움직임과 무대 전체를 밝히는 화이트 톤의 조명을 더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17>

확장된 조각이미지의 움직임1



<그림 4-18>

확장된 조각이미지의 움직임2



<그림 4-19>

확장된 조각이미지의 움직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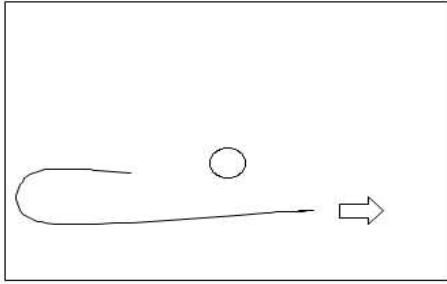
<그림 4-20>

버터플라이 허그의 반복적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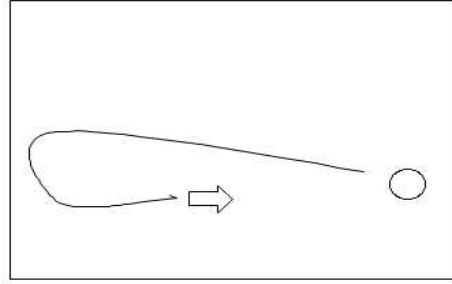
앞선 2장의 움직임 보다 신체 사용 가동범위가 넓으며, 동선의 사용 또한 넓어졌다. 2장에서 보여 진 반복적인 움직임을 확장시켜 3장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손가락으로 표현하였던 조각을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점차 커진 조각들의 이미지와 상대적으로 2장보다 큰 움직임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완성을 향해 가는 요인 또는 기준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찾아가고 나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2장에서 사용한 움직임의 반복을 3장에서도 사용하였는데, 수동적인 2장의 모습과는 달리 능동적인 움직임의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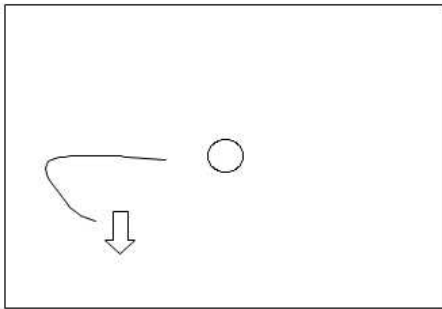
그림 4-20은 마지막 하수 조명 아래서 ‘버터플라이 허그’ 움직임을 하는 장면이다. ‘버터플라이 허그’는 심리요법 자세로 자기 위로 또는 진정 효과에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양손을 어깨에 교차시켜 올린 뒤 스스로를 토닥이며 진정시키는 동작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의 심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준 방법이었으며, 경험을 토대로 관객들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적인 동작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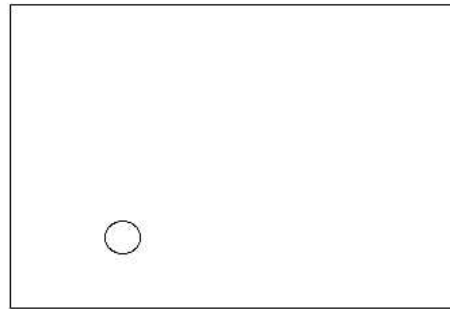
<그림 4-21> 3장의 동선1



<그림 4-22> 3장의 동선2



<그림 4-23> 3장의 동선3



<그림 4-24> 3장의 동선4

4.4.3 음악

3장에서의 음악은 Chopin ‘Nocturne No. 1 In B flat minor Op. 9-1 (쇼팽: 야상곡 1번 내림 나단조 작품번호 9-1)을 사용하였다. 이 음악은 피아노로 연주된 음악으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이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오로지 피아노 악기 하나만으로 음의 강약을 조절한다. 그 와중에 건반소리가 선명하면서 흐려지기도 하면서 애절하면서 희망찬 효과를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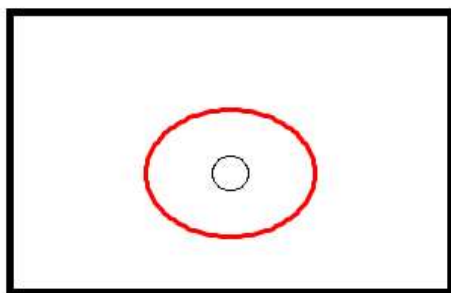
다. 앞선 2장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에 이어 확장된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건반소리가 또렷하게 들어와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있어 효과가 좋았다, 또한 중간에 음악이 단번에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잠재력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로 보아 미완성의 상태를 위로하고 인정함을 표현하는데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3장의 음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4.4.4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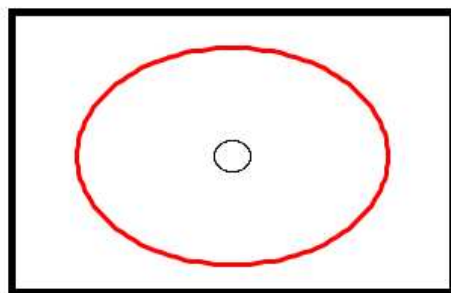
3장에서의 조명은 전반부에서는 2장의 반복적인 움직임의 확장에 집중하고자 센터 중심의 조명을 사용하였고, 넓어지는 동선에 따라 점차 전체 무대를 밝혔다.

또한 한 명의 무용수가 무대를 채우는 만큼 공간이 남아보이지 않도록 무대의 테두리는 연하게 처리하여 무대의 중심이 채워져 보일 수 있도록 효과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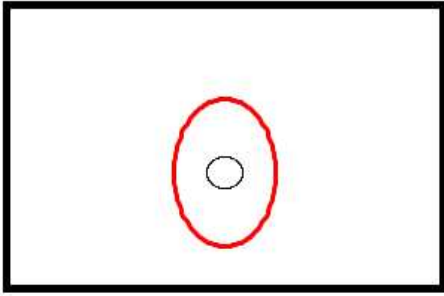
3장 후반부에 한 번 더 반복되는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무대센터에 포커싱을 주었고, 능동적인 움직임의 반복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위로하는 동작이 미니멀한 만큼 무용수의 표정과 동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이드 조명과 포커싱 조명을 함께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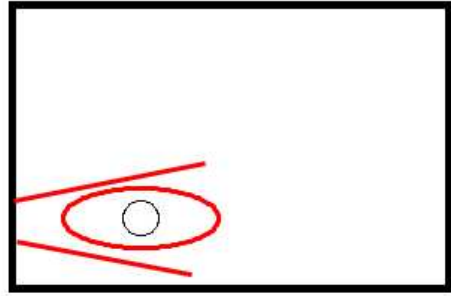
<그림 4-25> 3장 조명의 형태1



<그림 4-26> 3장 조명의 형태2



<그림 4-27> 3장 조명의 형태3



<그림 4-28> 3장 조명의 형태4

V. 결 론

본 논문은 대부분의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가받는 완성 또는 성공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작품이다. 완성과 성공의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이와 반대되는 미완성인 상태에 관련하여 연구하고, 분석한 작품이다. 작품 제작에 앞서 실존주의와 본질주의를 바탕으로 완성에 대한 정의는 본 연구자에게 있어 주관적 해석이었으며, 완성의 전 단계인 미완성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미완성인 상태는 비록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기존의 것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언제든지 완성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진 상태이다. 용기와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미디어 영상과 흰색 그리고 심리요법의 '버터플라이 허그' 제스처를 사용하였다.

인간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영상화시켜 움직임과 함께 구성하였다. 영상은 조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동시에 보이는 움직임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신체 부위들을 각각의 프레임에 담아 점, 선, 면 나아가 다각형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신체 부위의 조각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체의 각 부위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인간의 삶에 비유하여 노력과 도전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끝내 맞추지지 않는 하나의 비어있는 프레임이 미완성을 뜻한다. 그 후 조각의 이미지 확장과 더불어 흰색의 의미를 인용하여 미완성의 자각 및 자가 포용으로 이어진다.

작품에서 흰색은 용기와 잠재력을 의미한다. 흰색의 의미는 동양화에서의 여백의 미로 서양화의 유화 작업에 있어서 수정하는 색으로 쓰인다. 이러한 쓰임을 작품에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버터플라이 허그' 제스처를 통해서 위로와 자아의 실존을 전달한다.

본 연구자는 작품에 임하면서 이번 작품의 주제를 통해 관객들에게 '당신은 용기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완성이라는 결과에 틀을 만들어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란다. 미완성인 상태여도 당신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은 도전과 노력을 통해 사회가 보는 ‘완성 또는 성공’을 위해 나아간다. ‘완성과 성공’의 척도 그리고 유무를 판단하는 주체가 본인이었으면 한다. 자아의 실존을 경험하고 도전과 노력 그 자체를 용기와 잠재력으로 수용하였으면 한다. 연구자 본인도 위로와 용기를 얻은 분석 및 해석이 따른 연구였다. 성공한 삶, 완성된 결과를 모두가 원하고 또 목표로 살아간다. 그에 따르는 평가와 비판도 있을 것이다. 이를 타인에게 혹은 사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판과 평가의 시간마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아 실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명신. (1995). “무용에서의 움직임과 음악의 요소가 작품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 Paul Foulquié,(1990). 『실존주의』. 탐구당. 김원옥(역)
- 고영복(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Susan W. LIFE, 박세연(역). (2014). 『삶이란 무엇인가』. 웅진씽크빅 엘도라도.
- 댄스&미디어 연구소(2017), 춤과 뉴미디어: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궁미디어
- 산트라 커니 민튼(2013). 안무법 즉흥을 활용한 기본적 접근. 정옥조(역). 서울: 한국학술정보
- 엘리자베스 헤이즈. 조은미(역)(1993). 무용창작론. 서울: 도서출판정담
- 대한간호학회(1996). 간호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인터넷 자료>

- 실존주의 등장의 배경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402&docId=239848350&qb=7Iuk7KG07KO87J2YIOuTseyep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xx1MlpySD0ssaniYyGssssss3R-463154&sid=y4/TD%2Blk1FgfYFtioNM/Bg%3D%3D
- 실존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447&cid=42140 &categoryId=42140>
- 본질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594&cid=42121&categoryId=42121>
- 심리요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96048&cid=60408&categoryId=55558>
- 버터플라이 허그 <https://youtu.be/-AdFG7gek18>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
일 시	2020년11월 21일 토요일 19시
장 소	한성대학교 낙산관 대극장
안무자	박 민 지
출연진	박 민 지
의상디자인	박 민 지
무대감독	.
조명감독	주 영 석
영상감독	김 정 환

HANSUNG UV

MOVEMENT
MOVEMENT

2020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 작품 발표회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PM 7

권혁 김송연 박민지 박지예 이수빈

팜플렛

Park Minji

작품 제목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지 않아도 좋다.

작품 내용

완성되지 않은 것,

‘미완성’이라는 상태가 가진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고 탐구한 작품이다.

미완성이라고 하면 누구도 쉽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아도 좋다.

모든 것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아름다움도 존재한다. 바로 미완성의 미학이다.

미완성 상태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졌으며,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다.

완성되지 않아도 좋다.

당신은 용기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참 괜찮다.

작품의도

이를 표현하기 위해 미술에서의 ‘흰색’을 사용하였다.

동양에서 흰색은 얼핏 보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지만

빈 공간을 남겨둌으로써 깔끔함과 여운을 주는 여백의 미로 평가받는다.

서양의 유화 작업에서 흰색은 작품을 수정하는 색으로 쓰인다.

흰색을 덧칠함으로써 수정하거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완성은 용기와 잠재력을 지닌 상태이다.

모든 미완성을 괴롭게 여기지 말라.

미완성에서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은 일부러 인간에게
수 많은 미완성을 내려주신 것이다 - 아놀드 하우저 -

이 작품을 만들며

이번 작품을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채찍질하였고, 질문과 비판이 이어지는 시간이었다.
18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오롯이 혼자서 무대에 서야 한다는 것이 큰 도전이었다.
그동안은 무대를 혼자서 채울 용기가 없었다.
작품을 완성해가면서, 또 미완성의 미학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
완성이라는 기준은 타인으로부터 세우고, 판단은 내가 함으로서
그간 내가 나를 참 많이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다독여준 작품이다.
관객들도 이 작품을 보고 위로를 받고 스스로가 용기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학사부터 석사과정까지 지도해 주시고 힘써주신 박재홍 교수님, 김남용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 사랑을 주신
나의 스승님, 정석순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무 및 출연



박민지

지도교수 : 정석순 교수님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
Hanfilm

주최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삼선동2가) 한성대학교

ABSTRACT

Analysis of Dance Work 「The Beauty of Unfinished」

Park, Min Ji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is a work interpreted by this researcher on the aesthetics of unfinished work, and research and analysis of work on the conclusion that it has courage and potential in incomplete state.

There is a puzzle, which is a game in which one completed painting is divided into different pieces and then matched to the shape. The puzzle consists of pieces of different shapes, so you can't make a finished picture unless all are matched. But there was a question of whether all the pieces should fit in. What is the criterion of 'comple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terion was unknown. As a result, the concept of 'completion' became ambiguous to the present researcher, and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opposite word of completion, incomplete.

Incomplete means no one is easily interested. But sometimes it doesn't have to be completed. There is also beauty that comes when everything is not equipped. Inside it is the courage to dismantle the existing one and

start anew at any time, and the potential to continue moving toward completion. To express this, 'white' in art was used. In Oriental painting, white appears unfinished as an empty space, but it is regarded as a beauty of margins that gives a sense of neatness and lingering imagery by leaving space. Also, in the oil painting work of Western painting, white is used as the color to modify the work. You can make corrections or start all over again by adding white to the canvas.

I don't want people to just pursue the results of completion. Come to think of it, the criteria for completion are not set, nor is the nature of completion clear. I don't want you to criticize yourself and criticize others just because it's not completed. This work contains a message of consolation and support, saying that it has courage and potential while it is incomplete state.

To express this, it brought a 'sculpture' image used in 'Puzzle.' The body of a human being is photographed in pieces and expressed in a montage technique that is simultaneously represented on one side. In addition, it was visually expressed by quoting the meaning of white in art, and thus intended to express incomplete state. The piece, composed of three chapters in total, combines media images and dance, created the movement using images expressing the sculpture. By realizing the state of unfinishedness, works begin, and use it as a driving force to comfort and move forward without criticizing it. One dancer expressed and analyzed the work by solving it in motion.

What we find in this research is that we don't have to deny the incomplete state or the incomplete state. Sometimes there is beauty that arises when everything is not completed. It is the courage and potential that only a person can have.

【Key words】 Incomplete, complete, white, potential, container media images, sketch, sculpture